

타밀나두 - 한국

교육 협력의 기회

긴밀한 우애

- “대다수의 한국 기업이 타밀 나두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타밀의 기풍(**ethos**)과 잘 맞는다.
-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타밀인들도 학력이 높으며, 부지런하고 매우 친절하다.”

김경수 총 영사

인도와 한국의 기업관계

- 첸나이 내 **30**킬로미터 반경에 **3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
- “첸나이에만 **4**천여명 (인도 내 최대)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 “이들은 마치 고향에 있는 느낌이다.”

김경수 총 영사

세계가 한국과 인도의 총명한 학생들에게 기대

-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에서 인도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90%P, 10%I).
- 타이거 맘, 입시준비학원, 매우 권위주의적인 교사들이 지배하는 교육제도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 부모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엄마 - 첫 번째 교사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는

APPAA(아빠), AMMA(엄마)임.

중국이나 일본은 아니지만, 타밀나두와 한국에서도
같은 단어를 씀

‘기러기 아빠’란 아내와 아이들을 영어권 국가에 보내놓고 국내에서 일하는 한국 남성을 의미한다. 따로 사는 가족을 부르는 이름도 있다. 만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러기 가족”이라고 부른다.

자녀의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



기러기 아빠



문화적 유사성

가족단위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족이 경제 단위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단호하게 통제한다.

결혼은 여전히 사회적 수준과 금전적 안정을 보장하는 두 가족간의 거래이다.

인도와 한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 자유, 개인 선택,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실적, 성적, 복종에 관한 것이다.
- 집과 학교에서 권위에 억지로 복종해야 한다.

학생은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끊임없는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린다. 재능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 왜냐하면 이 문화권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면 실패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녀는 1년 내내 학교에서, 그리고 개인 교사와
함께 공부한다. 어느 정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진다.

부모는 꿈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본인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사회적 압박 - 자녀를 압박하는 것은 부모뿐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문화는 순응과 질서, 또래 집단 내에서의 인정 등으로 성적의 기대감을 높인다.

학생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란다 -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의사가 될 거라고 말할 것이다. 서구 아이들은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신념

- 고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이슈 -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초석 중의 하나- 이다.
- 교육에서의 성공은 문화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위치를 향상시키는데 필수이다.
- 학력은 가족의 자존심의 근원이기도 하다.

고등교육

교육은 사회이동 (social mobility)의 주요 동인으로,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류대학 졸업이 명망,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 성공한 결혼, 존경 받는 직업을 위한 최종 표식이다.

교육 - 인생의 필수 요소

평범한 아이의 인생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이의 마음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대학 졸업장은 사회적 편견이나 무시 때문에 중요한 문화적 오명이다.

SKY

한국에서는 '하루에 3시간 자면 SKY라는
일류대학에 갈 수 있고, 4시간 자면 그 밑의
레벨의 대학에 가게 되며, 고 3 막판에 5시간
이상 자면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이
있다.

*"SKY " 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의미한다.

성공은 대가를 치른다

- 학생시절은 황금시절 - 아이들을 위한 시절이 아니다
- 엄청난 스트레스,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낮은 자존감
- 부모도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은 고통을 겪는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상이 변했다 !!

- 전통적인 기술직과 의사만 명망과 부를 보장하는 직업이 아니다.
-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IT, 클라우드, 빅 데이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수백만 개의 직업을 제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기술 개발은 존중 받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며 높은 직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해 준다.

협력이 열쇠이다

- 영어는 세계에서 패권주의적 언어로 등장했다. 한국인들은 영어를 배우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
- 타밀나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 타밀나두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칠 뛰어난 인재도 보유하고 있다.

실현 가능한 것들

- 교환학생 프로그램 강화
- 교환교사 프로그램 강화
- 매년 (타밀어와 한국어) 책 10권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
- 여름 캠프 - 몰입 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영어 교육
- 타밀나두로 오는 모든 한국 기업들은 타밀나두 영어 학원 (TEU)에서 무료로 영어교육을 받고 있다.
- 타밀나두의 모든 한국 기업들은 인도 직원의 한국방문을 후원하고 있다.

장애물

- 문화 - 산업화 국가에만 편중
- 정서 - 속한 그룹에 있는 것을 좋아함
- 고용 기회

타밀나두와 한국은 전설적인 역사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호의 이익을 강화시킬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